

농정 난맥상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절실합니다

마른 장마로 유난히도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열대야에, 매일밤 깊은 잠 못 이루실 줄로 압니다. 쇠고기 '추가협상'이 있었다지만 실질적인 검역주권은 보장되지 않아서 국민들의 여론이 냉담하던 차에, 일본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금강산에서는 민간인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랜만에 개원을 했고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었지만, 농정 현안을 정략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여야의 신경전 속에 제대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참으로 어수선한 시기입니다.

농업은 더욱 심각합니다. 비료값, 사료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도 한우와 돼지고기마저 제대로 팔리지를 않습니다. 젖소 키우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근한 달을 넘게 유업체와의 원유가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걱정이 크셨을 줄로 압니다. 현장에 가면 면세유값이 계속 오르는데 그나마도 배정된 공급량도 쓸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서 실시중인 직불카드 제도가, 농번기에 현금이 모자란 농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청와대 비서진과 농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소폭 개각에 나섰지만, 성나고 냉담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새 농식품부 장관은 최대의 농정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통 경제관료이자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출신인 장태평 내정자가, 진정으로 350만 농민을 섬기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여야 정치권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통상절차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비료·사료·면세유값 급등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8월 11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제11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가 열립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들께서 여름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원 여러분들을 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